2026년 국제 추수 감사절 섞임 특별 집회 표어

아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의 생활을 시적인 형태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인적인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체험하는지를 밝혀 준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구애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신성하게 됨으로써 그분께 구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이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기는 이들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몸의 원칙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 신뢰하는
더 약한 이들일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분께서 매일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실 수 있게 한다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아 8:13)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뀌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늘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겠는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워치만 니)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2026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아가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1

아가의 첫 번째 단계 —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림

성경: 아 1:1–2:7, 요 14:21, 23, 21:15–17

Ⅰ. '솔로몬의 아가'는 그리스도의 연인의 영적인 역사를 시적인 표현과 단어와 어구로 서술해 준다. 아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의 생활을 시적인 형태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인적인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체험하는지를 밝혀 준다 — 아 1:1, 계 19:7, 비교 왕상 4:32.

A. 아가는 전도서와 대조된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긍정적인 체험과 부정적인 체험이 '허무 중의 허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전 1:2–3.

B. 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에서 노래 중의 노래, 만족 중의 만족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허무 중의 허무라는 것과 대조된다.

C.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놀랍고 경이로울지라도 그것이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인 한, '해 아래' 있는 허무 중의 허무의 일부이며 '바람을 잡는 것'(전 1:14)이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인간 삶의 영역이 비참한 종말을 맞는 타락한 사람을 두고 부르는 만가와 같다는 것이다.

D. '해 아래'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새 창조물만이 허무가 아니라 실재이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다' — 갈 6:15.

1. 옛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 — 고후 5:17, 요 3:15, 벧후 1:4.
2.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골 3:1)라고 격려하였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2절)라고 격려하였다.

E.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을 지어 주심으로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게 하셨다(창 1:26, 2:7). 또한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영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3:11, 확대역 성경)이다.

1.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을 거둘 때마다 우리 안에서 공허함이 느껴진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영원한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러한 것들을 찾는 열망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 — 비교 행 17:26–27.
3. 인생에서 거둔 어떤 성공이든 그 모든 누림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생명에 속한 온갖 물질적인 것들에는 '끝 날'이 있다 — 요 7:37.
4.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곧 노래 중의 노래이신 그리스도로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적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고후 4:18.

Ⅱ.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영적인 원칙이 아가에 나오는 추구하는 이의 이기는 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후에 나오는 공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공과들이 더 깊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 아 1:2-2:7.

A. 거듭남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이 유전자 안에 있다 — 요일 3:9, 막 4:26.

B. 원칙적으로, 아가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높은 요점들은 이미 우리의 것인데,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유전자이자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고 우리 안에서 자랄 것이다 — 롬 8:10, 골 2:19.

Ⅲ. 생명은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인격을 누리는 다른 길이 없다 — 막 12:30, 고전 2:9.

A.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여 온종일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린다면,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떠하든 즉시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 계 2:4, 7, 고후 12:4과 각주 1, 눅 23:42-43.

B.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은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그분의 현재의 임재, 현재의 인격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지금 분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 요 8:12, 빌 3:13-14.

C.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아들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며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나누며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음을 뜻한다.
2.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곧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신다 — 비교 고전 2:9-12.

D. 각 사람의 경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상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 행 26:14-19, 고후 4:6-7, 빌 3:8-10상, 13, 비교 신 4:25.

Ⅳ.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한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아 1:4)라는 말은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개인적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께 이끌릴 것이다 (렘 31:3, 비교 고후 11:2).

A.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던 이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

1.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갈망을 위한 하나님의 친구였다 — 대하 20:7, 사 41:8, 약 2:23, 창 18:1-33.
2. 우리는 모세의 본을 따라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가졌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하나님의 동반자였다 — 출 33:11-14.
3. 우리는 다윗과 아삽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찾았다 — 시 27:4, 8, 80:3, 7, 14-19.
4.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으며, 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 행 10:38하, 요 8:29, 16:32.
5. 우리는 베드로의 본을 따라야 한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자신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양을 목양했으며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다 — 요 21:15-19, 막 16:7.

6.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했다 — 고후 2:10, 5:9, 14-15, 20.

B.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주님을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접촉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갈망은 '입맞춤'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입맞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무도 동시에 두 사람과 입맞춤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아 1:2.

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다정해야 한다.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내게 입맞춤하는 것'은 다정한 것이다 — 아 1:2.

A. 시편 2편 12절은 "아들께 입 맞추어라. / …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

1. 아들께로 피하는 것은 아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요 3:16, 36),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와 은신처로 삼는 것이다(시 18:1-2, 31:19-20, 34:8, 57:1, 71:1, 91:1-2, 4, 9, 118:8-9, 144:2, 잠 30:5).
2. 아들께 입맞춤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 요 14:21, 23, 비교 시 91:14.
3.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1:12),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기 위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이다(고전 2:9, 비교 16:22).

B. 우리가 주님과 다정한 관계를 가질 때,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분이 되신다 — 엡 3:8, 2:7, 롬 10:12-13.

1.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은혜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 롬 8:15-16, 갈 4:24-26, 사 66:12-13.
2.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 마 9:15, 고후 11:2.
3.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형님이시다 — 요 20:17, 롬 8:29.
4.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 마 11:19, 요 15:12-17.
5.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조언자이시다 — 사 9:6.
6.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 요일 2:1.
7.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 요 14:16, 15:26.
8.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 시 23:1, 벧전 2:25.

Ⅵ.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내밀해야 한다.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아 1:4하). 왕의 내실은 그리스도의 내실인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상징한다(딤후 4:22, 엡 3:16, 2:22).

A. 우리는 비밀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내밀하게 접촉하면서, 우리 전 존재를 그분께 열어서 그분의 빛 비춤과 주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 마 6:6.

B. 이 땅에서 최고의 직업은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주입받는 것이다 — 출 33:11, 고후 3:16, 18, 4:1, 비교 마 14:23, 막 1:35, 눅 5:16, 6:12, 9:28.

C. 우리는 우리의 숨을 곳이자 거처이자 충족의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시 31:20, 27:5, 90:1, 91:1, 빌 4:13.

Ⅶ.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한다(아 1:4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의 영(왕의 내실) 안에 거하시며, 이 두 영은 한 영으로 함께 연합된다(요 4:24, 롬 8:16, 고전 6:17).

A.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방문하신다. 우리의 영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자 모든 왕의 왕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내실인 지성소이다 — 고전 15:45하, 롬 8:16, 딤후 4:22.

B.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해야 한다 — 고전 2:15과 각주 1, 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Ⅷ. 주님과 우리의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게 하며, '연회장'(아 1:7-8, 2:4)인 교회생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 변화되고 교회생활 안에 있는 온전하게 하는 이들에 의해 온전하게 될 수 있다(엡 4:11-12).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이들(혹은 '변화시키는 이들')은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역하여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 우리의 미덕들이 되게 하여(아 1:10하-11)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여(고전 3:12상, 계 21:18-2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